

제 104 호

연중 제 34 주일

(강림 후 25)

1974. 11. 24

# 숲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3498)

### [강론]

## 한국적 빌라도



### 이 재 후 신부

구약시대의 모세는 하느님으로부터 간선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다. 파라오의 박해를 벗어나 홍해를 건너 이집트를 탈출했다. 살아난 백성들은 위대한 영도자 모세의 개신가를 불렀다.

그러나 광야에서 기아에 허덕이자 그들은 차라리 노예 지위에서 맛있는 고기와 빵으로 배불리 먹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모세를 원망했다. 야훼께서 모세의 청을 들으시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이셨다. 모세는 십계판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서 구름속으로 들어가 마흔 낮과 마흔밤을 지냈다. 그동안을 참지 못한 몽매한 백성들은 모세의 형제 아하론을 출삭거리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에 빠졌다. 진노하신 야훼는 모세를 통하여 십계판으로 금송아지를 바수어 버렸고 우상에 빠져 먹고 마시고 회회덕거리던 자들도 소탕해 버렸다.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을 이루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보자. 자기 동생의 마누라 헤로디아를 맞이한 헤로데에게 요한세자는 "당신이 그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다"(마태오 14: 4)고 여러차례 간하였기 때문에 요한을 죽이려 했다. 그러나 민중이 요한을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에 민중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다. 마침 헤로데의 생일이 돌아와 딸은 잔치에서 춤을 추어 요한을 즐겁게 했다. 춤 춘 댓가로 딸이 청한 약속대로 요한의 목을 베었다. 이렇게 악독한 헤로데는 민중의 신망이 없고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자신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죽을때 덕망있는 많은 신하들을 죽임으로써 그 통곡소리가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처럼 하도록 유언을 했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 육신의 쾌락만을 섬기는 자에게 부당한 죽음과 비참한 멸망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실정인가? 어떤 우상이 관을치고 있는가? 우선 먹기는 깨끗이, 달더라도 고무신짜 한 켤레, 막걸리 한 잔, 국수 한 그릇으로 무책임하게 만들어낸 우상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빌라도가 경멸하는 뜻으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글을 써 붙였듯이 이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조롱할런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 중의 하나가 지절인것처럼 한국의 빌라도는 우리를 향하여 "당신들이 천주교 신자요? 당신들도 살리고 우리들도 살려 보시오"라고 악의찬 독설을 퍼붓는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성당의 성체 불 처럼 언제나 왕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야 하겠다. 그리스도 왕을 모시고 한 백성이 되어 일치 단결하므로써 그리스도 공동체를 더욱 굳게 하고 우상앞에 조아리는 비굴함을 버려야겠다.

<고산 본당신부>

### \* 이 주일의 미사 \*

#### (1) 개회식

□ 입당송 하느님, 당신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그 마음 당신께 돌아오는 이들에게 정녕 평화를 말씀하시나이대

#### (2) 말씀의 전례

- 제1독서 (사무엘후서 5: 1-3)  
다윗에게 기름을 발라 이스라엘 왕으로 봉했다.
- 출계송 ○주님의 집으로 가자할 제, 나는 몹시 기뻐노라.

주님의 집으로 가자 할 제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은 이미 서 있노라. ○

- 제2독서 (골로사이 1: 12-20 성서 p. 457)  
우리를 당신 사랑하시는 아드님 나라로 옮겨 주셨다.
-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받으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오도다. 알렐루야
- 복음 (루가 23: 35-43 성서 p. 197)  
주여 당신 나라에 가지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 □신자들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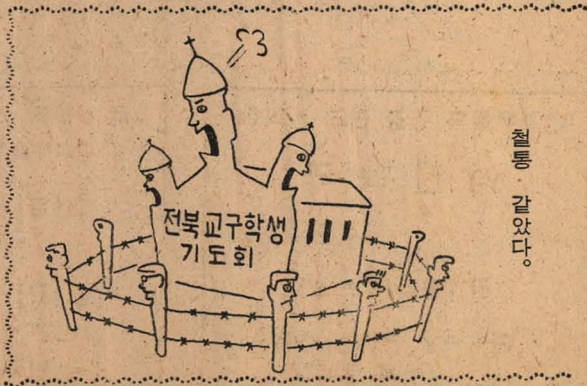
1. 주여, 만유위의 제일의 왕으로써 섭김을 받아야 할 당신에게 모든이는 현세적 권력, 돈, 명예욕, 아부적인 우상숭배에 도취되어 있지않나 각자 자신을 돌아보아 오직 당신만을 만유위의 왕으로써 섬기도록 은총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주여, 권리를 짓밟고 악욕에 가득찬 지도자들에게서 부정과 부패를 뽑아 없애시고 참다운 지도자가 되도록 은총주소서. ○
3. 주여, 이 세상을 떠나간 이들을 위하여 구하오니 그들을 당신의 품으로 맞아들여 주시어 길이 평안함을 주소서. ○

+ 주여 이 모두를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당신 양들의 부르짖음을 귀여겨 들으시어 허락하소서 우리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대. ○ 아멘.

#### (3) 성찬의 전례

- 봉헌 ○성찬식
- 영성체송 못 나라 백성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 사랑 우리 위에 곳곳하셔라.

### \* 숲정이 산책 \*



# 조국을 위한 기도회

일시 : 11월 17일 오후 2시

장소 : 전 동 천 주 교 회

주최 : 대한 가톨릭 학생 전주교구 연합회

대한 가톨릭 학생 전주 교구 연합회는 지난 주일(11월 17일 오후 2시~5시 30분) 조국을 위한 기도회를 갖고 <정부>와 <학원>, 그리고 <성직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했다.

이에 앞서 교육위원회와 학교 당국에서는 학생들을 염려한 나머지,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서, 가능한한 학생들의 기도회 참여를 만류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은 종교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더욱 문제가 되었던 일은 기도회 당일엔 전주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는 학생들의 기도회 참석을 막기 위하여 역이나 정류소에서 기차와 버스의 승차를 못하게 했던 점이다. 남원에서 여덟 명의 학생들이 자전거로 기도회에 참석했던 점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하겠다. 또한 전주 시내에서는 전동 성당을 중심으로 열 군데에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기도회 참여를 막았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심과 해성의 교우 및 예비교우 학생들,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대학생들, 일반 교우들로 성당은 입추의 여지가 없이 들어 왔다.

오후 2시부터 성가연습(지도 : 김병오)으로 시작된 기도회는 “가톨릭 학생의 자세”(연사 : 한상갑)와 “왜 조국 기도회를 갖는가?”(연사 : 문정현 신부) 라는 강의를 듣고 미사에 들어갔다.

미사를 집전한 김재덕 주교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달려온 남원의 학생들과 다른 지방 학생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내고 미사를 주례했다. 참회에 절(지도 : 김봉희 신부)에 이어 강론(김환철 신부)에서는 현 사태에서 왜 우리는 기도회를 갖는가를 밝히고, 기도회를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지적했

다. 신자들의 기도에서 학생들은 교회와 조국, 위정자와 육고를 치르고 있는 지주교님을 비롯한 성직자, 교수, 학생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기도회에 참석한 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미사를 마치고 십자가, 사제단, 수녀단, 학생들, 일반 교우의 순서로 성모상 앞에 모인 학생들은 목주의 기도(지도 : 김중길 신부)를 마치고 학생 대표들이 낭독한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 <학원에 보내는 메시지>, <성직자 일동에 보내는 메시지>를 박수로 채택했다.

이어 이들은 별항의 구호(결의문)을 외치고, 많은 이들이 지나치게 열려했던 바가 기우였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침묵의 기도”와 “대한 가톨릭 학생의 노래”, “주모경”을 끝으로 오후 5시 반에 기도회를 모두 끝내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자전거를 타고 온 학생들>

## 결 의 문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가톨릭 학생들은 신앙과 양심에 따라 비평하고 행동할 것과, 또한 우리의 바램과 의침이 조속히 실현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복귀는 학생들의 움직임은 악용하지 말라.
2. 학원사찰 중지하고 문교정책 작성하라.
3. 유신헌법 철폐하고 민주헌정 회복하라.
4. 본연의 직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지성인들은 작성하라.
5. 언론인들은 자구선언을 실천하라.
6. 교통 중인 지학순 주교를 비롯하여 모든 성직자, 교수, 학생들을 석방하라.

1974. 11. 17

대한 가톨릭 학생 전주교구 연합회 조국을 위한 기도회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 울태(베드로)

☎육교옆 중앙 시장통  
(전화 ④4577)

고급 선물용, 케익, 빵, 파자, 찹쌀떡

◎교우들에게 특별 할인◎

### 이미 제과소

상업은행 옆 (②6589)

### 이미 예식장

남문 옆 (②3915)

김 민주(가타리나)

◎ 닭 · 염소 · 야생동물 일체 ◎

### 화랑상회

<교우들에 특별 봉사>

최 병 수(안당)

남부시장 닭전

전화 ④ 6C91(교환) 108

□시국선언□

□꾸르실료□



# 울프레이 선언

꾸르실료 전주교구 사무국은 지난 주일 가톨릭 센터에서 울프레이(Ultreya)를 갖었다. 56명의 꾸르실리타들은 김재덕 주교님의 헌시집에서의 평신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천주교 신자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고찰"에 대한 평신도 강의(Rollo)를 들었다.

이들은 울프레이를 마치며 조국이 처해 있는 당면문제에 대하여 뜨거운 크리스찬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 우리는 우리가 저야 할 십자가를 솔선해서 지고 수난당하는 성직자와 교수, 변호사, 학생들에게 양심적인 존경을 표하며, 그들의 피땀이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당국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조치를 하루빨리 풀기를 촉구한다.

2. 우리는 김총리의 종교관에 대하여 감히 증언한다.

사도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가르치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권력"은 "기계적이거나 폭군적인 형태로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유와 책임의식에 뿌리박은 도덕적 힘으로서 전국민의 힘을 공동선으로 향해주는 권력"이라야 한다 (사목헌장 74)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정치권력이 개인과 사회집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제주의나 독재형태를 취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는 점 (사목헌장 75)"을 분명히 밝혀 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짐은 짐다하고 원것은 회다하며,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들을 외면함이 죄악이라고 여겨 광야의 소리를 외치는 것이다.

3. 우리는 사랑과 존경이 결여된데서 야기된 학원 사태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한다.

당국자들 못지않게 학생들도 애국자들이다. 최고의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교육자적 양심도 저버리고, 교육관도 없이 자신의 영달과 안위에만 급급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교육자 본연의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오늘 열리는 전주교구 학생회 주최의 기도회에 학생들을 참석 못하게 하려는 종교탄압도 서슴치 않는 이 현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당국도 학원 사찰을 중지하라 학원의 자유가 침해당할 때, 조국의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음을 적시하자.

4. 우리는 언론인의 자구선언을 진폭적으로 지지하며, 다시한번 촉구한다. 참으로 알아야 할 일이 알려지지 않는데서 오는 국민들의 가치관 혼란 내지는 마비는 누구의 책임인가? 부관의 제왕다운 궁지로 몰다운 의식계발에 정진하라.

5. 우리는 한국 꾸르실료 전주 울프레이의 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스도께 실망드리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1974. 11. 17 전주 교구 울프레이 참가자 일동

## 요십이 (70) 김병오



□신간안내□

### 루가 복음 해설

신자들의 묵상 길잡이 1,300원

성 바오로 서원 (T. 2-7398)

### \*이 주간의 성경\*

- 25 (월) 독서 (묵시록 14: 1-3, 4b-5 성서 p 577)  
복음 (루 가 21: 1-4 성서 p. 188)
- 26 (화) 독서 (묵시록 14: 14-19 성서 p. 578)  
복음 (루 가 21: 5-11 성서 p. 188)
- 27 (수) 독서 (묵시록 15: 1-4 성서 p. 579)  
복음 (루 가 21: 12-19 성서 p. 189)

- 28 (목) 독서 (묵시록 18: 1-2, 21-23, 19: 1-3, 9a 성서 p. 583)  
복음 (루 가 21: 20-28 성서 p. 189)
- 29 (금) 독서 (묵시록 20: 1-4, 11-21: 2 성서 p. 587)  
복음 (루 가 21: 29-33 성서 p. 190)
- 30 (토)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  
독서 (로 마 10: 9-18 성서 p. 356)  
복음 (마태오 4: 18-22 성서 p. 6)

파이렉스·실크벽지  
집철·도장 청부  
**대동**  
지물 페인트상사  
전주 동부시장동(25986)

\*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프 랑 스 제과**  
\* 임 금 님 찻집 \*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⑤5011 찻집 ⑤5013  
김 원 준(야고버)

◎교형 여러분의 집◎

**현대 사진관**

김 낙 준(요한)

오거리 한진 옆  
전화 ⑤ 6289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전주교구 중·고등 연합회 제 2차 회장단 회의 : 각 성당 회장, 부회장 전원\* 참석 바람  
일시 : 1974년 11월 24일(일) 오후 2시 장소 : 가톨릭 센터
2. 방송 안내 : 마음의 등불  
매월 4주말 오전 6시35분~50분까지, 이리 바오로 성당 양 제철 신부님께서
3. 농촌 문화 연구회 교육 "채소 분과" (26(화)-30(토)) 및 유실수, 경제림 조성 (1.2.3(화)-7(토)) 경기도 안양  
※ 참가 희망자는 가톨릭센터 내 농촌 문화 연구회에 문의 하시기 바람 (전화 ㉠ 3498) 회비 : 3,000원



- 결혼 강좌**  
 ※ 특전 수료자에게는 혼인참고 면제함  
 일시 : 1974. 11. 25-29(금)까지 (5일간) · 오후 7. 30-9. 30  
 장소 : 가톨릭센터 회의실 수강료 : 1인당 1,000원 (교제제공)  
 주제 월 : 부부의 에티켓(정주복 선생) 결혼의 신학과 심비(박창신 신부) 화 : 생리학(김병열 산부인과장) 남녀의 심리(김현수 교수) 수 : 가정과 교육(조해형 교장) 육아법(김은숙 교수) 목 : 결혼에 대한 교회법 및 전례(김환철 신부) 가정과 사회적으로 본 결혼(김동수 법원장) 금 : 결혼의 윤리학(법석규 신부) 결혼의 전례(김영일 신부) 수료식 및 다과회 기타 문의전화 ㉠ 3498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합승현 사도 회장 조해철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후
2. 애령회 간부 월례회 : 공식 미사후
3. 고요셀 신부님 어머니 별세 (오늘 10시 미사)  
많은 신자들의 기도와 미사예물을 봉헌합니다.
4.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남노 : 이기환 1,000, 중노2가 : 김정순 2,000,  
남노 : 장재마 60,000, 인후1가 : 김마리아 : 1,000  
다리공소 : 박복순 (혜혜나) 1,000  
신축 성당 제대 계약 : 이베드로 70,000  
주계 65,000원 누계 1,791,652원
5. 11월 위령 합동미사 : 29일 금요일

2. 신용조합 월례회 : 공식 미사후 (통장 제출 바람)  
3. 반희합 일경

- 1, 2 : 김한기, 이양한 11. 26, 10반 : 한 글라라, 심미레사 11. 21, 17반 : 박장춘, 장세시리아, 한마리메레사 11. 28, 15반 : 박방지거, 강낙춘 11. 29,
4. 공소 일경  
내어두리 : 11.26. 미어두리, 석장리 : 11.27, 신리, 색장리 : 11.28, 의암, 마처리 : 12.2 마울리공소 : 12. 4-  
★ 축 결혼  
주 상언 (미카엘), 한 세시리아 (혜숙) 11월25일  
진 영수 (방지거), 정 순배 (마리아) 11월30일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박종환 사도 회장 김종환

1. 사도회 전체 확대 회의 : 공식 미사후 즉시
2. 분당 신부님 영명축일 : 성 안드레아 침례 11월30일
3. 미사시간 변경  
월, 화, 수 : 오전 6시30분 목 : 오후 7시30분  
금 : 오전 10시 (어머니미사) 토 : 오후 5시 (어린이미사)
4. 축 결혼 : 11월30일 10시  
김 요왕 (주철) 군과, 김 마리아 (화자)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정승현 사도 회장 이권재

1. 예비자 교리 : 공식미사후 11시, 저녁미사후 8시, 월 저녁미사후 7시30분
2. 글라라 형제회 : 오늘 오후 1시30분
3. 성가회 창립 : 공식 미사후
4. 사도회 상임위원회 : 저녁미사후 (성탄 준비차)
5. 신용조합 가입희망자는 매주 (금) 저녁미사후 가입함

◇ 금주의 숭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김 루가 (봉호) 박사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교무금 미 신임자 불투 찾아가시기 바람
2. 신용조합 월례회 : 공식 미사후
3. 신부님 영명 축일에 많은 기도, 협조 감사드립니다  
성미 : 한말 누계 328 (숙죄와 복속을 뜻으로 정성껏 성미 합니다)

**(중앙)** 전화 ㉠2651 주임 신부 이대권 ㉠3874 보좌 신부 서석구 사도 회장 이복석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 미사후
2. 교무금 신임 : 신년도 교무금 신임액 (11월18일 현재) 1,308,500원 (예산액 4,095,000원 32%)  
신입세대 188세대 (총 세대 995세대 18%)  
이 통계를 보고 양심의 문을 두드려 봅시다.
3. 주일헌금 : 8만원 이상으로 분당 유지 가능합니다. 적극 협력 합시다.
4. 전라고 "셀" 공개회의 : 오늘 오후 2시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부 신부 안인읍 창제안인읍	관공서 교무금 완납 요망	3,385원	제 3 지구	창인동 등	구역장 및 반장 회의	19,885원
		종합 간이 구장 개설 한 가정에 의자 한대씩!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애령회 월례회	10,096원			사도회 중대 회의	3,010원
제 2 지구	대 문울동	연령 합동 미사	1,980원	제 4 지구	노 송동 서학동 중앙	사도회 월례회	15,120원
		구역장 회의 첫 교해자 교리 실시	31,595원 8,995원			사도회 전체 확대회의 신용조합 월례회 신용조합 월례회 사도회 상임 위원회 사도회 월례회	7,091원 10,040원 39,402원 25,206원
제 3 지구	고 금여 주현동	사도회 임원 재편성	10,005원	제 5 지구	남 부 장 진	사도회 월례회	3,685원
		친선 체육대회 신용조합원 확보와 출자에 관심을 불우한 이웃형제를 성미로 도웁시다	2,427원 9,220원			반상회 지성인 교리 미사 시간 변경	2,685원 4,680원